



# 곡성 문화

2017년(단기 4350년) 12월 31일 / 10호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빙신호 ☎ 061-362-0890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되어주신  
문화원가족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온누리에 평화의 물결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선조들의 숨결  
영광의 과거 급제 행렬이요!





###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원천(源泉)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각자 소임(所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가정문제로 인한 이혼을 증가와 패륜범죄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비인간화 사회 등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미력하나마 삼강오륜의 하나인 부부유별(夫婦有別)에 대하여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보고 성찰(省察)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다. 즉 남편(夫)과 아내(婦)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함이란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본분이 있으니 부부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예(禮)를 잘 지키면서 각자 소임(所任)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각에선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봉건사회의 남존여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하여 오륜 중에서 부부유별은 남성 중심, 여성차별의 전형으로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는 말과 함께 남녀 간의 차별이라고 비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서양도 남녀평등에 동양보다 먼저 눈을 떴을 뿐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효시(嚆矢)인 영국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데는 인간 띠 시위를 비롯한 대중적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해 1918년에 와서야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양

의 동서(東西)를 가리지 않고, 시의 고금(古今)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황에 맞는 전통적 가치관과 보편성을 가지는 가치관의 재확립을 위한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유별(夫婦有別)이란 부부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간에 배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정신적인 특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 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부부유별은 남녀불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기본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농경사회 시대에서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보편적으로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어 가사, 양육 등 모든 부분을 서로 분담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부유별은 마치 관현악합주의 단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연주하여 아름다운 하모니(harmony, 조화)를 이루어 우렁찬 감동을 주는 것과 같이 부부가 연주하는 사랑의 합주곡도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과 인격을 존중하는 분별함이 있어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저마다 자기의 본분을 명심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고, 예(禮)를 잘 지키면서 각자 소임(所任)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이룩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글/곡성문화원장 고광운

### 겸손한 의회, 다가가는 의회, 현장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교수신문은 2017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나쁜 것들을 부수고 바르게 나타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뽑았습니다. 이는 국민 스스로 올바른 바를 구현하기 위한 염원과 노력이 현실화되었던 현대사에 큰 변곡점을 남긴 한해였음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곡성군의회에서도 작년 신년사에서 천명했던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의지로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불공정 해외 매각 중단 촉구 성명과 건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켰으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노력과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조례들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내수

경제 회복을 통해 국민 3만 달러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 역시 대부분 밝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귀중한 기회의 순풍에 힘차게 돛을 올려 새로운 청사진을 따라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혁신으로 바꾸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언제나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막힌 곳은 뚫고 원칙은 지켜내며 지역발전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은 깊이 새겨 겸손한 의회, 다가가는 의회, 현장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원한 오늘은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힘차게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무술년 황금 개의 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며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곡성군의회 의장 이만수

## 곡성 작은영화관 개관

-성탄 선물, 30년 만에 생긴 영화관,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 문화 공간으로 역할 기대-

곡성에도 영화관이 돌아왔다. 1980년대 중앙극장과 곡성극장이 문을 닫은 지 30여 년 만이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2일 군민회관 옆에 위치한 작은영화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영화 상영을 시작했다. 전라남도가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추진하는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곡성 작은영화관’이 지난 22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영화 ‘곡성’에서 읍내 파출소장으로 연기를 펼쳤던 김기천 배우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곡성 작은영화관’은 12억 5천만 원을 들여 2개 상영관, 95석 규모로 건립됐다. 일반영화는 물론 3D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관람료는 도시지역 영화관보다 저렴한 5천



원이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한다. 하정우, 차태현 주연의 ‘신과 함께’를 시작으로 ‘강철비’, ‘스타워즈’, ‘1987’ 등 최신 개봉작을 상영한다.

작은영화관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가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1일 5회씩 연중무휴로 상영될 예정이다. 유근기 군수는

“그동안 주민들은 영화를 보기위해 광주, 순천, 남원 도시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많은 영화를 보기가 어려웠다. 이제 곡성에서도 최신 개봉 영화를 저렴하게 바로 볼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유근기 군수 새해 힘찬 포부 밝혀

한편 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을 과시한 유근기 군수는 “함께 해요, 행복의 희망곡성” 비전을 바탕으로, 민선 6기 마지막해인 2018년을 맞아 “군민과 약속한 사항은 물론 추진 중인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글/곡성군청 홍보팀장 박광천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MOU 체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11월 27일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본청 간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0여명,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방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간 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남의 교육과 문화 발전, 학생들의 교육적·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자료 제공,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프로그

램을 공동 기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에 대한 상호 협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문화원연합회 황호용 회장은 “전남은 문화인프라가 풍부한 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 교육감은 “전남의 지방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

게 알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MOU체결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에 기여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공고한 의지를 모아 새로운 교육·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글/전남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김순곤

곡성심청스토리

## 곡성의 문화와 심청

지난 12월 20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곡성의 문화와 심청’ 주제로 공연과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행사는 곡성문화원이 2017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1부에는 곡성군민 판소리 심청가 부르기, 마당극 심청 공연을 펼쳤고, 2부에는 곡성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우리 문화원 회원을 비롯 곡성군 관내 주민, 남원문화원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고광운 곡성문화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심청의 효가 살아 숨 쉬는 곡성은 예로부터 충·효·예를 바탕으로 한 ‘의절의 터 곡성’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아 전통과 문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또한 우리 곡성은 심청이야기의 출발점인 관음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덕산의 관음사는 서기 300년(백제 분서왕 3년) 성덕보살이 창건한 남한 제일의 백제 고찰로 알려져 있으며, 연기설화의 주인공 홍장이 보낸 금동관음불상이 보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문화는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는 문화자원의 발굴과 육성·활용 등 교육의 힘에 의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곡성 학술세미나에서는 전 경기대학교 부총장 이재범 교수(좌장)의 「곡성 관음사 사적과 심청설화」와 서남대학교 서정섭 교수의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 호남대학교 이원강 교수의 「노령사회와 효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청암대학교 정희선 교수와, 곡성군의회 주성재 의원, 남원문화원 김현식 사무국장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곡성의 문화와 심청” 학술세미나는 곡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심청을 다학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곡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의 소중한 학술세미나 발표·토론 자료가 곡성 특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군민의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2017 창조지역사업 곡성 학술세미나가 있기까지 적극 지원해 주신 곡성군청 관계자를 비롯 극단 곡성 마당극 심청 공연 단원들과 판소리 심청가 부르기에 함께해 주신 곡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 문화재청장상 수상 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 선정



지난 12월 7일~8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충청북도 보은에서 열린 '2017 문화재 활용사업 하반기 워크숍'에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주최하고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이 주관하는 '축제한마당-과거시험 보고 신나게 놀자'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2017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87선이 진행되었으며, 과거 선현先賢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향교·서원 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재 활용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문화재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축제한마당-과거시험 보고 신나게 놀자'는 3월부터 12월 까지 곡성향교에서 관내 초·중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 문화재 탐방 등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향교·서원 문화재 등에 대해 재미있는 놀이형식으로 미션을 수행토록 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활용사업은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8년도에는 참여 대상을 곡성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재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글/ 곡성문화원 회원, 편집인 빙신호

##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행렬 재현



2017년 문화재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시대 과거급제 행렬 재현 행사'가 지난 11월 21일 곡성 관내 초·중학생, 곡성향교 유생, 곡성문화원 회원, 해병전우회, 곡성군민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과거시험은 고려·조선 시대에 과거를 통하여 관리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된 시험으로 장원 급제자는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받으며 고향에 입성하였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재현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주최하고,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이 주관해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택)과 곡성향교(전교

조덕기)의 협조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조선시대 과거급제 행렬 재현 행사'는 곡성중앙초에서 개회식을 갖고, 옥곡중학교 취타대를 선두로 우수 상소문의 주인공인 초·중등 장원 급제자 3명과 과거급제 시험에 선발된 급제자들에 이어 곡성향교 유생, 곡성문화원 회원, 해병전우회와 새마을회 등 곡성군민들이 곡성군청에서 교육청을 거쳐 곡성경찰서까지 곡성을 시가지를 행렬하며, 유근기 곡성군수, 이종택 곡성교육장, 김영창 곡성경찰서장에게 상소문을 전달했다. 상소문을 전달 받은 기관장들은 상소문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과거급제 행렬에 참여한 장○○ 학생은 "향교·서원체험 프로그램은

통해 우리의 문화재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은 과거급제자 행렬을 통해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재현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근기 군수는 과거급제 초등부장원을 한 학생에게 고을 원님에게 바라는 상소문을 받고, "곡성을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멋지고 좋다. 적극 반영토록 하고 곡성의 밝은 내일의 희망을 위해 다양한 분들의 소중한 생각들을 귀담아 들어 군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택 교육장은 과거급제 중등부장원을 한 학생의 상소문을 전달 받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더욱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소문의 내용을 잘 반영할 것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오늘의 과거급제자 행렬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창 곡성경찰서장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과 곡성경찰이 하나 되어 참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 곡성문화원이사 김재걸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

# 과거보고 신나게 놀자, 향토문화·역사 체험하며 배운다

"유생 의복이나 향교 건물, 그리고 향교에서 진행되는 제향의식에서 사용되는 말과 행동이 무척 생소하고 신기합니다."

지난달 20일 곡성향교 앞뜰이 때 아닌 초등학생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유생 의복을 갈아입고 '곡성향교 워킹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0여 명의 입면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무척 낯설고 정겨우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곡성향교에서 '축제한마당... 과거보고 신나게 놀자'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이날 곡성향교 명륜당에서 유생 의복으로 갈아입은 채 탐별로 나눠 '곡성향교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학생들은 향교가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덕기 전교 어른신이 직접 설명해주고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과 유생 의복 웃고춤매기, 향교의 문화생활 양식 등 다양한 옛 문화를 공부했다. 대성전에 올라가서는 공자 등 중국 성인을 비롯 이황과 한국 성인께 정중하게 목례로 인사 드려 향교 유림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실시하고 있는 성현 배향을 몸소 배우는 등 향교·서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광주교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MC가 초·중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향교에 대해 재미있는 놀이형식으로 미션을 수행토록 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다.

곡성군 주최, 문화재청 후원으로 곡성문화원(원장 고광운)과 곡성향교(전교 조덕기)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관내 초·중등생과 주민 등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과 체험, 문화재 탐방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덕양서원과 오지리 인문학산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곡성중앙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이 오

곡면 오지리 마을 일대를 돌며 곡성문화원 조준원 사무국장과 곡성관광해설사 등의 구수한 입담과 해설로 약 2시간 소요되는 체험활동을 소화해냈다. 이들은 오지리 일대를 둘러본 곳 가운데 지방문화재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유교를 도입한 회헌 안향과 그의 정신적 스승인 송나라 주자의 영정을 모시는 사당인 도동묘를 찾았다. 이곳은 전남 유형문화재인 회헌실기목판본이 보관돼 있으며, 이날 일반인들에게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또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운동시설 오강사를 둘러보는데 구한말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의 제자인 성암 조우

식과 배헌, 조영선, 석연, 정대현의 위패와 면암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역사의 현장을 몸으로 느꼈다. 특히 이곳은 면암 선생 추모를 저지하고 방해한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결한 성암 조우식 선생의 손부인 신애순 여사가 학생들을 맞이해 주면서 현장감이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찾은 덕양서원은 평산신씨 종중이 시조인 고려개국공신 장절공 신숭겸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는 곳인데, 학생들은 이곳에서 서원의 기능과 역할, 신숭겸장군의 충성심, 홍살문의 의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달 10월 13일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현재 곡성심정과 곡성을 배경으로 심청전 소설을 집필중인 유현종 선생(연개소문 및 대조영 작가)을 모시고 '작가와 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곡성문화원 고광운 원장은 "학생들에게 관내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과 탐방을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를 재발견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곡성일보 대표 김래성

포항·경주  
현충시설 및 문화유적 답사

#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 곡성문화원은 문화시대의 행복한 주역이 되고자 매년 두 차례 농한기를 택하여 전국 각지의 소중한 문화유적지와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찾아가는 문화체험 나들이를 나선다. 2017년 봄에는 고창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왔다. 가을에는 11월 7일~8일(1박 2일), 80여명의 회원들이 포항·경주 지역 문화유적답사 길에 올랐다.

포항은 경북 동해안 영일만에 동해와 접해있으며, 인구는 51만 여명으로서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포항온천, 해파랑길 23코스,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1970년대 포항종합제철(현재 포스코)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제철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온 후, 요즘 뜻밖의 지진피해로 인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그지없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실천하는 NGO 이웃지원 희망브리지'성금 후원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름 그대로 섬이었던 죽도동 죽도시장(竹島市場)



1954년 개장한 동해안 최대의 재래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는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 영포화타운 2층에서 제철을 맞이한 포항 물회와 매운탕으로 점심을 먹고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겨울철의 별미인 구룡포 과메기와 포항물회가 제철을 맞이한 양 우리 곡성문화원 일행들을 반겨 맞아 주었다. 죽도시장을 천천히 거닐면서 건어물과 고래 고기, 오징어, 그리고 죽도시장의 명물인 개복치 등 해산물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은 가는 줄도 몰랐다.

영일대해수욕장 영일대에 올라



포항 인근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에 관광차를 세우고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머물러 여유를 즐겼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른손에는 붓을 왼쪽에는 책을 끼고 있는 장군상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누구나 이순신장군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으나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장군의 상징물이었다. 마치 모래 위를 마라톤하는 모습, 수많은 나비 떼가 한데 모여 화합을 상징하는 철 조형물 등 철의 도시답게 모든 작품들이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 일행은 바다 위를 가로지른 다리를 거닐며 찾아간 영일대전광대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겼다. 초겨울 바다 모래사장 영일대해수욕장은 한산하기 그지없었으나 갈매기는 출지도 않은지 물위에 떠 노래하며 반겨주었다.

바다를 메워 건설한 세계적인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 흥보관에 도착했다. 젊은 남녀 두 사람이 뛰어나와 우리 문화원 어른들을 반겨주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바다를 메워 건설한 세계적인 포항제철소 이모저모



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1958~1969 시련의 땅에서 꿈을 갖고 꿈을 키운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철강은 국력, 철은 산업의 쌀이다. 철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철보국의 꿈에 인생을 걸었다. 온갖 역경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꿈을 향해 달려갔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되어, 1970년대 영일만에 포항제철소를, 1980~90년대에 광양제철소를 준공했다. 기술을 위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발로 뗀 사람들 덕분에 마침내 1998년 조강생산 기준 전 세계 1위의 철강회사로 성장했다. 포스코 역사관을 관람하며 바다를 메워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신에 제철소를 건설한 포스코인들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 철강제품 제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부글부글 붉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이고, 철강제품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포스코인들의 흘린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로지 제철 보국의 사명감만으로 일구어낸 영일만의 신화가 광양민에서 꽃피워 세계적인 철강기업을 성취한 포스코인들의 숭고한 이념과 불굴의 혼이아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좌표가 되었다.

오늘 만난 젊은 남녀는 우리고장 곡성 석곡 출신으로 석곡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 포스코에 입사한지 약 25년 쯤 된 장한 아들 박병건씨 부부였다. 우리 답사 일행인 이재금 회원님의 아들 며느리였다. 아들은 금일봉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리는 등 효(孝)와 경(敬), 예(禮)를 겸비한 곡성인이었고, 며느리는 관광버스에 올라 포스코의 역사와 현황,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하여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포스코 홍보대사요, 훌륭한 곡성의 며느리였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곡성의 후예(後裔)들이 이 젊은 이들과 같이 향토애호정신을 갖고 「의절의터 곡성, 삼청의 효가 살아 숨 쉬는 곡성인」으로서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경주는 언제가도 천년고찰 불국사를 비롯 천년을 묵묵하게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적들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다. 경주 화왕산호텔에서 온천탕을 즐기며 1박을 했다.

세계문화유산 토함산 석굴암

불국사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약 3km(포장도로 석굴로는 9km) 정도 올라가면 동양 제일의 걸작으로 알려진 여래좌상의 본존불이 동해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석굴암이 있다. 토함산 석굴암 밑에서 감로수를 마시며 건강 무병장수를 빌었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재위 당시 재상 김대성이 건립했다. 건립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다. 이 석굴은 불교 세계의 이상과 과학기술, 세련된 조각 솜씨가 어우러진 걸작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하여 건립했다고 한다. 신라예술의 극치이자 동양 불교 미술의 대표적 작품이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돌판에 새겨진 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석굴암 입구에 통일대종이 있었다. 1인 1타 1000원 불우이웃돕기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구름을 마시고 토합니다”는 토함산(745m)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은 찬란한 신라 불교문화의 핵심이다. 1,440년 전 신라 법흥왕 22년에 그 어머니 뜻에 따라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그 후 신라 경덕왕(742~764)때 재상 김대성이 다시 지어 절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으로 건물은 물론 값진 보물들이 거의 불에 타거나 약탈되었다. 1920년 이전에는 일부 건물과 탑만이 퇴락한 채 남아 있었으나, 지속적인 원형복구 및 보수로 국보 7점을 간직한 오늘날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불

국사 백운교와 청운교를 오르면 자하문(紫霞門)을 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구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하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상서로운 자금색 광채가 서려있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에 들어서며 토함산 옥로수를 마시고 다보탑과 석가탑을 견학했다. 화려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이 돋보여 조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다보탑(국보 제20호)은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다. 그 맞은편에는 간결하고 직선적인 조화가 아름다운 삼층석탑인 석가탑이 있다. 이 두 탑은 「묘법연화경」의 견보탑품에 근거하여 건립되었다. 「불국사 사적기」에는 다보탑을 다보여래상주증명탑(多寶如來常住證明塔)으로, 석가탑을 석가여래상주설법탑(釋迦如來常住說法塔)으로 지칭한다. 즉 다보여래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찬양하기 위해 보탑의 형상으로 솟아나 공중에 머물며 찬양한 후, 탑 내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나란히 앉았다는 내용이다.

동리 목월 문학관

이 문학관은 경주 출신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의 예술 업적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김동리의 중편소설 「을화(乙火)」가 1982년 노벨문학상 최종심에 오르면서 그의 소설은 영어·프랑스어·도이치어·이탈리아어·폴란드어·일본어 등 열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작품 「무녀도」, 「등신불」, 「을화」, 「사반의 십자가」가 세계인들에게 환영받은 것은 그의 토착세계의 탐구가 인류의 보편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목월은 자연과의 교감과 향토적 서정의 세계, 우리의 전통적 울조를 살린 시를 써서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목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록파' 시인이다. 민요의 가락을 살린 그의 동시와 향토적 서정시 「송아지」, 「빠꾸기」, 「흰구름」, 「청노루」, 「윤사월」, 「나그네」, 「그리움」 등은 국민 모두가 즐겨 읽는 시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붙여진 '국민시인'이란 칭호는 국민들이 부여준 매우 적절한 이름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다.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을 곡성이 자랑스럽다. 포항·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일행은 숨어있는 곡성의 소중한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힘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문화유적답사에 참여해 주신 80~90대 문화가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시간은 힘이 생긴다.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장수고을 곡성이 자랑스럽다.

글/곡성문화원장 고광운

**慶州秋月**  
(경주추월)

玲瓏熙阜 古都秋(영릉희부 고도추)  
徐伐名區 璧月悠(서벌명구 벽월유)

竟統山下 三姓地(경통산하 삼성지)  
始分部落 六村樓(시분부락 육촌루)

廢墟基礎 寒烟鎖(폐허기초 한연쇄)  
衰草荒殘 暮雀遊(쇠초황릉 모작유)

舊國繁華 無處問(구국번화 무처문)  
蟾光猶有 艷姿流(섬광유유 엄자유)


佛國寺 石窟庵 瞻星臺

영릉히 언덕에 빛나는 고도의 가을  
서라벌 이름난 곳은 달빛이 유유하네

산하의 경지에 삼성의 땅에  
처음 부락 육촌의 루이네

폐허의 기초 찬연기가 막히고  
쇠한 풀릉에 저녁 공작이 노네

옛나라 번화한 곳 물을 곳이 없고  
섬광 아름다운 자태 흐르네



글/ 곡성문화원회원  
곡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梧鳳 鄭得采



제 18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글짓기 부문(대상)

# 나의 세 번째 할머니



인천 서창초등학교  
5학년 2반 박서원

나에게는 세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두 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외할머니, 친할머니이고 나머지 한 분은 어릴 적 나를 키워 주신 만수동 할머니이다. 할머니와 나와의 인연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쌍둥이로 태어난 서운이와 나를 엄마는 도저히 혼자 돌보시기 힘들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지방에 사시고, 친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우리를 같이 돌보아 주실 수가 없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는 분 소개로 아기보기를 도와주시는 만수동 할머니를 만나셨다고 하셨다. 혹시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아이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처음에 엄마는 나이 드시고 모르는 분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되셨다고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

를 보면 볼수록 엄마의 걱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한 번도 결혼한 적도, 아이를 낳아 보신 적도 없었던 만수동 할머니는 우리를 어찌나 지금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는지 처음에는 아침에 오셨다 저녁에 가시곤 하셨다가 밤에도 우리를 떼어놓기 싫으시다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 중에 한 명을 번갈아가며 데리고 가셨다가 금요일 저녁에 데리고 오시곤 하셨다고 한다. 엄마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할머니 집에 갔다 온 녀석은 하도 안아주시고 놀아주셔서 엄마가 돌보기 힘들 정도였어. 엄마보다 더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 아무도 없는 할머니께 잘 해야 해.”

하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 살까지 키워주셨다는 만수동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만 되면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마음에도 없는 감사 편지를 억지로 써야하는 할머니는 나에게 조금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 가족은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신 만수동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놀이동산이나 여행을 가면 딱 좋겠는데 막히는 길에 강화도까지 가려니 마음 한구석에 귀찮음이 살짝 밀려오고 있었다. 두 시간 넘게 달려 겨우 요양원에 도착하자 멀리 요양원 현관에 앉아 계신 빼빼 마르신 할머니가 보였다. 나의 나쁜 마음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 가까이 요양원 입구에 앉아 계셨다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죄송함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어찌나 마르셨는지 할머니는 꼭 겨울나무처럼 까맣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는 나와 서운이를 보자마자 이 병실 저 병실 우리를 자랑하러 다니시기 바빴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이라며 우리를 만지고 또 쓰다듬으셨다. 조금씩 커가면서 나는 만수동 할머니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랑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보고 싶으셔서 야쿠르트를 잔뜩 사서 버스를 두 번씩 같이 타고 오셔도 만수동 할머니는 그냥 만수동 할머니지 진짜 피가 섞인 다른 두

할머니처럼 가족이라고 까지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런 내가 가족이 아무도 없는 할머니에게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유일한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할머니 눈을 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요양원에서 내내 할머니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오는 길, 우리 가족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할머니께서 우리 준다고 모아 놓으신 까만 봉지를 열어보니 잘 먹지도 않는 과자가 한 가득이었다. 어쩌지 나는 그 과자를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 같았다. 과자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과자는 아마도 나에게 쓴 과자가 될 것 같았다. 엄마 말씀이 할머니는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신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할머니께 진짜 손녀가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나의 세 번째 할머니예요. 오래 오래 사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 18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그림 부문(대상)



부산 해송초등학교  
3학년 2반 박선유



## 제18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대상 호(호)주제 공모 - 글짓기부문 120명, 그림부문 202명

글짓기부문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박서원 금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장서연
- 은상 -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이유미 은상 - 전라남도지사상 서지율
- 동상 - 곡성군수상 전승유
- 동상 손은채, 정재민, 박서윤, 이시훈, 안지민, 박도연, 김서현, 이서연, 양태훈, 김하민, 정유찬, 염우찬, 강민재, 손다솔, 성재혁, 이지민, 최명서, 이윤서, 오재원, 전지유, 조수호, 전예원, 정인경, 최이레, 이유빈
- 장려상 이지수, 손진희, 안현진, 이시호, 엄지민, 김기윤, 이하린, 조유빈, 오세윤, 임시현, 김루아, 김서영, 임연주, 이승민, 이우준, 손단비, 김수민, 이영현, 서지희, 서정연, 소민서, 박지안, 김충명, 안세진, 이연우, 이시영, 임주호, 최지한, 이현욱, 이지한, 이수혁, 김민영, 김가현, 성소연, 박근영, 권도훈, 정현승, 이예나, 손서윤, 김성원, 박민재, 임희진, 최인선, 허지훈, 송현서, 박의솔, 김민서, 김보민, 서우진, 이승은, 정인수, 최수연, 김진한, 원지후, 나지호, 배창균, 황채원, 박윤지, 원동환, 이준열, 손지우, 김보민, 김윤희, 이서윤, 고연지, 장시우, 유지우, 권민혜, 임홍균, 강해비, 김민경, 박소이, 김윤지, 이가연, 이지민, 최은서, 김소미, 이유민, 박은아, 노정민, 박규현, 장유진, 심서윤, 김나영, 주은진, 김태현, 박종환, 김시운, 김리윤, 김재강

그림부문

-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 박선유 금상 -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김현지
- 은상 - 전라남도지사상 장윤진 은상 -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유지호
- 은상 - 곡성군수상 맹수연
- 동상 강중서, 문진솔, 김시우, 노하은, 이은성, 정용재, 신지우, 임도후, 오승주, 심이현, 김나영, 박시은, 이태준, 김로빈, 김화연, 김유은, 주 회, 주 은, 김민경, 양민지, 서태솔, 이하린, 이지민, 박연수, 배에서, 박정은, 배나래, 최유은, 최지민, 채지율, 김형준, 이건훈, 양수아, 한다연, 노서정, 지승민, 최담이, 강나경, 최은서, 박건호, 이서희, 장시은, 김지현, 한예진, 최윤아, 엄규선
- 장려상 이하영, 박준우, 윤채연, 황서진, 이하경, 이재영, 김규린, 김이안, 주예솔, 전서민, 김 솔, 안준서, 이다연, 김서진, 최서원, 김수민, 여민서, 최주아, 이경현, 권유민, 조서영, 김하을, 최서윤, 최형준, 박소정, 장인서, 최호은, 김단유, 예주완, 이나은, 최예원, 조하은, 유예림, 박건태, 최시연, 김정우, 임지원, 양나경, 이우영, 조성민, 장영주, 이윤서, 이찬형, 이해민, 신우진, 송시호, 김선명, 선경조, 황지원, 정재빈, 윤서연, 황정현, 허유진, 박준석, 황초원, 임예서, 신윤승, 최윤서, 박조은, 정유진, 이유미, 김아진, 김태운, 김서우, 박채린, 권민준, 오재원, 권연우, 이상현, 김재현, 이다은, 허솔비, 김소장, 이민지, 조성재, 박유진, 김민후, 오유하, 노현우, 이시은, 박근영, 공우준, 형태희, 박소희, 김유진, 최유영, 강현주, 홍수연, 김윤호, 양재현, 박소윤, 김태형, 조수빈, 유 립, 조하은, 정민혁, 김다은, 문하진, 정아란, 손무경, 김인호, 김지윤, 손채은, 박윤유, 김동영, 심성빈, 백승희, 노지유, 윤가현, 최승이, 유진하, 김정윤, 백지현, 김동현, 서건희, 홍정우, 강 류, 윤서윤, 송유리, 조수연, 이호원, 김혜원, 김재학, 구승모, 정윤아, 조서호, 김도현, 김지원, 반예은, 나리후, 서지윤, 표예현, 장소정, 김도은, 이지현, 연수빈, 송성은, 박수빈, 조영래, 배서현, 이은율, 민지석, 조현수, 채수연, 민정원, 변지우, 변석주, 김민서, 장진호, 성승빈



### 곡성문화원 전 김종 부원장 전남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



우리 곡성문화원 전 김종 부원장(전 삼기명장, 사진 가운데)이 지난 11월 3일 제 9회 전남문화원의 날을 기념해 전남문화원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김종(90세) 전 부원장은 '효 정신을 일어가는 이 시대에 팔순 부부의 지고지순한 효성심과 사랑으로 100세가 넘으신 노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수발한 효행 수범이 널리 알려져 젊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어 2010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곡성의 대 어른이다. 오랫동안 곡성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

### 곡성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농산물 제값받기와 성과물 전시



지난 11월 29일 섬진강기차마을 로즈홀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4-H회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년 동안 단체활동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결의문 채택, 농산물 제값 받기와 각종 교육 성과물 전시, 회원들이 모은 사랑의 쌀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했다. 특히 농산물 제값받기 노하우, 강소농 브랜드 개발교육, 각종 농업인 교육 성과물과 풍성한 볼거리, 농업인 끝없는 운영 등 화합한마당 행사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곡성읍청년회 사랑의 연탄과 생필품 전달



곡성읍청년회(회장 양광래)는 1987년 창립 이래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지원, 인구늘리기 홍보와 사랑의 줌도리 운동으로 성금을 모아 물품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1월 곡성읍청년회(회장 양광래)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우이웃 13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3천장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매년 추진해 온 사랑의 연탄 배달사업과 물품 나눔행사는 청년회가 회원의 회비와 비회원의 후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회원이 직접 참여해 맘 흘려 봉사하는 이웃사랑 실천 사업이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전달한 연탄이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전해지기만을 바라는 청년회원들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 곡성교육발전토론회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택)에서는 11월 30일 곡성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교육기관 관계자 등 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라는 주제로 올해로 2회째 곡성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곡성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단, 곡성학부모연합회, 곡성교육희망연대, 곡성자치연대 등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교육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종택 교육장은 "이번 토론회가 곡성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값진 시간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 곡성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전개



곡성군새마을회(회장 박준식)는 11월 22일 600여 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를 진행하는 가운데 '곡성사이다' 라 명명되는 곡성군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곡성사이다는 답답한 상황이 통쾌하게 해결되거나 풀리는 상황을 말하는 사이다라는 뜻에 사이좋은 이웃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새로운 뜻을 더하여 곡성군 인구늘리기 홍보캠페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민과 함께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곡성군 인구 3만 지키기를 위해서는 실제로 곡성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미진입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피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곡성토란, 광주국제식품전 참가



곡성토란 웰빙식품 명품화사업단(단장 오태영)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광주국제식품전에 참여하여 곡성토란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가에게 쌀 대체 작목으로 인기가 좋은 곡성대표 고소득 작목인 토란은 곡성 관내 주요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숍 등에서 다양한 레시피로 변신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 농산물이다. 특히 인기상품인 칸토란, 토란대의 포장재 리뉴얼로 상품의 고급화를 통해 유통망을 더욱 확장시키고, 토란푸드 토란만주 토란미숫가루 토란부각 등 올해 신규 출시된 상품의 홍보마케팅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 제3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 공모

곡성문화원에서 곡성군 경로효친의 실천과 문화예술교육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3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효행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등 4개 분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입니다.

## 1. 추천부문

부문	인원	추천대상
효행부문	각 부문별 1명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며 우리 민족 전통의 “효”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부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부문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교육부문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곡성 교육 발전에 앞장서며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 2.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선정된 분에게는 상장과 상패 수여

## 3. 추천서 접수 및 선정

가. 후보자 추천자격

- 각 부문 : 곡성군 기관 · 사회단체 또는 곡성문화원 회원 추천

나. 접수기간 : 2018년 1월 16일(화) ~ 2월 14일(수)까지

다. 접수처 : 곡성문화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061) 362-0890 / 팩스(061) 363-7300

이메일 gs0890@kccf.or.kr

##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조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추천서는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5. 발표

가. 2018년 2월 말 곡성문화원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발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나. 2018년 3월 중 시상

#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킴과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 · 중 · 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운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르름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골짜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홍보
- 향토자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나라 문화재 지킴이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주민극단 마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